

# 녹색 가전 생산보다 중요한 녹색 가전 사용 습관

가전 제품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1997년 선진국의 컴퓨터 수명은 6년이었지만 2005년은 2년으로 단축됐다고 한다. 2004년 전 세계에서 팔린 컴퓨터는 약 1억8천3백만 대였으나 2010년에는 7억1천6백만 대의 컴퓨터가 소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가정용 가전 기기가 전체 전기 소비량 중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게다가 해마다 20~50톤의 가전 제품이 새로 생산되고, 점점 짧아지는 사용 주기로 인해 엄청난 양의 가전 제품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가전 제품의 수요와 사용은 녹색 소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가전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금지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가전 제품의 구입과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1등급은 5등급보다 에너지 30~40% 절감



같은 종류의 가전 제품을 쓰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에 비해 에너지가 30~40% 절감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이 가전 제품에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 1일 이후 제조된 가전 모델부터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한 시간 사용 시의 소비전력량’, ‘한 시간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제도화했다. 구입 시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에너지 소비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입 단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입 시 가족 수에 맞는 적정한 크기 및 용량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무조건 크고 새로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이 에너지 절약의 최대 적이다.

가전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는 대기 전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레인지 플러그를 꽂아둬서 새나가는 대기 전력은 가구당 연간 24kWh로 실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소비되는 전력의 30%를 넘는다.

특히 비데의 연간 대기 전력은 98kWh, 4L 용량의 냉온수기는 570kWh에 달한다. 이는 700L 냉장고의 월간 소비 전력(31kWh)보다도 훨씬 높다.

##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절약의 첫걸음

세탁기는 세탁기를 한 번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은 세탁량이 아주 많지 않다면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빨랫감을 한데 모아 세탁기 용량의 70~80% 정도 되게 세탁량을 조절하면 전기와 물이 절약된다. 6kg의 빨래를 한 번에 하면 3kg씩 두 번에 나누어 세탁할 때보다 평균 30%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컴퓨터는 한 번 켜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켜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켜두면 형광등 3~4개를 켜두는 것과 같은 전력이 소비된다. 특히 17인치 모니터의 경우 100W 가량의 전력이 소비된다. 1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한 모니터는 꺼두거나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대기 모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대기 모드를 설정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모니터의 전력 소비를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전자레인지의 사용 시간은 10분 안팎으로 짧지만 평균 소비 전력은 1000W 정도로 전기 제품 중 에어컨 다음으로 전력 소비량이 큰 제품이다. 장시간 조리하는 용도보다는 짧은 시간 음식물을 데우는 데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냉장고는 사용할 때 문을 자주 여닫는 습관이 냉장고의 소비 전력을 높이는 가장 나쁜 버릇이다. 문을 열면 냉장고 내부의 전등이 켜지고 냉기가 빠져나간다. 또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식혀서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4L의 물을 50℃에서 5℃로 냉각할 경우 20℃의 물을 5℃로 냉각하는 것보다 전기료가 10% 정도 더 들기 때문이다.

TV는 프리히터라고 해서 TV 화면이 바로 나오도록 하거나 원격 조정용 전력이 소비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격 조정은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다. 즉 플러그를 빼두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 녹색 소비를 실천해 보니...



녹색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생활에 적용해 보았다. 이미 많은 녹색 소비자들이 실천하고 있었으나 필자는 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먼저 구매를 적절히 했는지 궁금해 가진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전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 제품이었다.

평소 보통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절전형 콘센트로 교체했다. 쓰지 않을 때는 꺼두었다.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을 때 아예 두꺼비집 전원을 내렸다. 냉장고는 꼭 필요할 경우에만 열고 닫았다. 단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켜두었던 식탁 위 불박이식 반찬냉장고는 꺼두었다. 세탁은 모아서 함으로써 세탁기 사용 횟수를 줄였다.

이렇게 녹색 소비를 한 달 실천하고 사용 전력을 비교했다. 물론 매달 생활 패턴이 다르므로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전력 사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하는 우리집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보면, 실생활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의 절감 효과와 CO<sub>2</sub>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 알기 쉽게 해놓았다. 에너지절약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 실천해야겠다.

■ 글/김재영(한국소비자원 국제소비자연구팀)